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1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수, 금요일 (오전 9 시-오후 8 시). 화 (오전 9 시-오후 6 시),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성서 사도직을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받으소서. ●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열을 새롭게 하시어 성서를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주소서. ●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3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4/10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4/17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4/24	이 마틸다	김 유스티나	성인복사
5/1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3/20	\$ 251.00	\$ 85.00	\$ 800.00
3/27	\$306.00	-	-

*백합꽃 봉헌 (3/20): \$40.00. *사순희생봉헌금 (3/27): \$ 567.00

*미사용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당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 성가책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반환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이삭

사랑을 포기해야 얻는 황금

이용숙 안젤라 음악평론가

제가 어릴 때는 여우 목도리나 족제비 목도리가 유행이어서 겨울이면 동네에서 동물 한 마리를 목에 두른 어머니 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뾰족한 코와 꼬리를 보면 죽은 여우나 족제비가 금방이라도 다시 살아날 듯해 겁이 나기도 했지만, 몸은 다 잃어버리고 털가죽만 남아 인간에게 봉사하는 죽은 동물이 가엽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독일에 공부하러 갔다가 어느 자연사박물관 전시실 벽에 걸린 모피 코트를 보았습니다. 박물관에 모피코트가 걸려있는 것이 신기해 다가가 읽어보니, 바로 옆에는 죽은 표범 가죽이 활짝 펼쳐진 채 걸려 있었고, 이런 해설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레오파드 코트를 입으려 하면 이처럼 아름다운 표범을 세마리나 죽여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표범 가죽의 무늬 는 그 하나하나가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곁에 다가와 표범가죽을 함께 들여다보던 독일 초등학생들이 '예쁘다!'를 연발하면서도 "난 절대로 모피 코트를 입지 않을 거야."라고 그 자리에서 다짐하는 걸 보고, 전시 기획자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효과가 바로 나타났으니까요. 독일 TV에서도 모피를 얻기 위해 사육되거나 잔인하게 살해되는 동물들의 현장을 자주 볼 수 있었 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어 모피 소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피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불쌍한 동물들을 죽일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오랜 옛날에는 인간이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짐승을 죽여 털가죽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오늘날엔 추위보다는 모피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하거나 그 아름다움으로 자 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또는 풍요의 상징으로 모피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물건이나 고가의 물건을 소유할수록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 타고 다닌 낡은 차를 음식점이나 집 앞에 세워 놓은 사람과 방금 산 값비싼 새 차를 세워놓은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의 마음도 있다."(루카 12,34) 이런 문제에 관련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명쾌하게 정곡을 찌르는 구절은 세상 어디에 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 동 체 소 식

4 월 성체조배: 4/7 (목) 저녁 6 시 30 분.

4 월 첫째 목요일인, 4 월 7 일(목) 저녁 6 시 30 분에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4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 4/17 (주일) 아침 8 시 미사 후

4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세째주일인, 4 월 17 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분들이 주님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복유럽 신화를 소재로 한 바그너의 음악극 <니벨룽의 반 지>에는 라인 강 바닥에 있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들의 황금을 훔쳐다가 '절대반지'를 만드는 못생긴 난쟁이가 등 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소유할 절대적인 힘을 주는 반지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에 게 사랑받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지키던 강의 요정들은 "이 세상에서 대체 사랑을 포기하고 황금을 얻으 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며 방심하다가 황금을 도둑맞 습니다. 사랑과 황금을 결코 둘 다 차지할 수는 없다는 이 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 으며,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루카 16,13 참조) 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와의 증인'은 어떤 종교 인가요?

'여호와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창설된 종파입니다. 이 종파를 인정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첫째, 삼위일체를 부인하며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천주성을 부인합니다. 셋째 로 인간의 영혼 불멸을 부정하며, 넷째, 「파수대」나 「지금은 갯 때이다」와 같은 기관지를 통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다섯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병역 거부 및 징총 거부,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주보에서>